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자녀의 시장노동 참여 및 참여 시간 결정 요인 :
기혼여성자녀와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을 중심으로*

Intergenerational Time Transfers between Married Women and their Co-residing
Elderly Parents and their Impact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소비자학과
방문연구원 한 지 수
교 수 홍 공 숙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s, The Ohio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Han, Jisue

Professor : Hong, Gong-Soo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선행 연구 및 개념적 모델 | 참고문헌 |
| III.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generational time transfers between married women and their co-residing elderly parents, and how they affect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 hour. The sample was drawn from the "2004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Heckman's 2-step model was estimated to examine these relationships.

We find that women's caregiving time for their elderly parents reduces their likelihood of participating in the labor force. On the contrary, parental time transfers for married women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their labor force participation. We find no evidence that the actual hours of paid work is related to the time transfers between married women and their elderly parents. In other words, after married women decide to participate in the labor force, their work hours are not affected by the time spent for parents and time gained from parents to them.

Parental incom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whereas husband's income is negatively related. The married women working in service occupation and earn salaries work longer hours than those employed as laborer and wage workers. Having older parents and owning the second home reduce

working hours of married women.

주제어(Key Words): 기혼여성(married women), 시장노동(labor force participation), 시간 이전(time transfer), 노부모(elderly parents), 보살핌(caregiving)

I. 서론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통적, 비공식적으로 노인 보살피기의 주 담당자였던 성인 딸이나 며느리는 시장노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노부모 보살피는 역할을 병행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두 활동에 배분하는 시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느 한 쪽의 선택이 다른 쪽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활동과 노부모 보살피기와의 관계는 대체로 부적인 것으로 예측되며 적어도 부정적 관계를 전제한 가운데 많은 연구들(Ettner, 1995; Johnson & Lo Sasso, 2000; Pavalko & Artis, 1997; Stern, 1995; Wolf & Soldo, 1994)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활동과 노인 보살피기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시간자원 배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자녀의 시장노동시간과 자녀에게서 노부모에게로 이전되는 노부모 보살핌 시간 간의 상호관계, 주로 노부모 보살피는 시간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자녀에게서 부모에게로 이전되는 많은 자원 가운데 시간 자원을 하나로 포함하여 자녀의 취업 여부 혹은 취업 시간이 노부모에게로 이전되는 보살핌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그 결과들은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대체로 두 활동에 대한 시간배분 사이의 부정적 관계 즉 노부모 보살피기 시간이 자녀의 시장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시장노동 참여를 덜 하게 하거나 반대로 자녀의 시장노동 활동이 부모에게로 이전되는 보살핌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연구들이 있다(Ettner, 1995; Johnson & Lo Sasso, 2000; Pavalko & Artis, 1997). 그러나 두 활동 사이의 시간배분이 큰 교환(trade-off)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들도 있다(Stern, 1995; Wolf & Soldo, 1994).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몇몇 연구자들은 '노부모는 보살핌을 받기만 하는 존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노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즉 노부모세대에게서 자녀세대로 이전되는 자원의 측면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Ingersoll-Dayton, Neal & Hammer, 2001; Loomis & Booth, 1995). 노부모의 건강 등 상황이 허락한다면 노부모가 자녀에게 가사노동이나 손자녀 보살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노부모로부터의 원조는 며느리 혹은 기혼 딸이 취업노동을 결정하거나 취업에 시간을 할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도 일관적이지 않은데 여성부모와의 동거가 기혼여성의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성지미, 차은영, 2001)와 부모로부터의 도움은 자녀의 시장노동일을 오히려 덜 효과적으로 하게 한다는(Ingersoll-Dayton et al., 2001)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시간배분 문제를 경험하게 될 기혼여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장노동 참여와 노부모 보살피는 시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를 가족 관계 내에서의 시간자원 이전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족 관련 정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때 기혼여성에게서 노부모에게로 이전되는 시간뿐 아니라 노부모로부터 기혼여성에게로 이전되는 시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노부모가 제공하는 시간이 기혼여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노부모의 위치를 재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본 연구는 현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두 인구학적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지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II. 선행 연구 및 개념적 모델

1. 선행 연구

1) 기혼여성과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과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기혼여성의 취업과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자녀 세대에서 노부모 세대로 이전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자녀세대의 취업과 노부모 보살핌 두 변수를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때 주로 자녀세대의 취업을 종속변수로 하고 노부모 보살핌 시간을 (내생적(endogenous)) 설명변수(기혼 여성의 시장노동 시간과 노부모 보살핌 시간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의 배분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trade-off)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내생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본래 두 변수가 내생적 관계에 있을 때 이중 설명변수에 대한 예측 값(predicted value)을 구한 후 이 값을 최종 모델에 투입하여 두 변수간의 내생성에 의한 오류를 수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노부모의 보살핌 시간에 대한 예측 값(predicted value)를 구하고자 시도하였지만, 후술할 <표 3>에서 보듯이 노부모를 보살피는 기혼 여성의 수가 너무 적어 모델 자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측 값(predicted value)대신 원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로 하여 노부모 보살핌 시간이 자녀의 취업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많았으며(Ettner, 1995, 1996; Johson & Lo Sasso, 2000), 어떤 경우는 두 변수 간 인과 관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양 방향의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였다(Pavalko & Artis, 1997).

그 결과 대체로 부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장애가 있는 부모와의 동거가 여성의 노동 시간을 의미있게 감소시키거나(Ettner, 1995, 1996), 부모 보살핌 시간이 여성의 취업시간을 줄인다는 결과(Ettner, 1995; Johson & Lo Sasso, 2000) 등이 있다. Pavalko & Artis(1997)는 보살핌 대상을 가계구성원이 아닌 사람으로 확장하여 두 시간변수 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보살핌을 시작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연구들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찾아내지 못하거나(Wolf & Soldo, 1994; Stern, 1995) 부적 인 관계라도 그 교환관계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Pezzin & Schone, 1999).

두 번째로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이전 되는 자원을 시간이외에 재정자원, 공간, 정서적 지지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그 중 하나로 시간자원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는데(고선강, 2005; Boaz, Hu & Ye, 1999; Couch, Daly & Wolf, 1999), 이때는 주로 이전되는 자원들이 종속변수로, 자녀의 취업이 주요한 (내생적) 설명변수로 다루어진다.

고선강(2005)의 연구 결과 자녀의 취업 여부가 노부모에게 보살핌을 제공할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취업한 경우 시간제공을 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oaz et al.(1999)과 Couch et al. (1999)은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탐구하였는데, 부부의 취업 유형에 따라 노부모 보살핌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거나(Boaz et al., 1999), 노부모를 보살피는 시간과 취업노동시간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ouch et al., 1999).

이러한 흐름 가운데 White-Means와 Hong(2001)은 양쪽의 연구를 연결시키면서 건강에 제한이 있는 부모에 대한 보살핌 시간, 재정자원 이전, 성인자녀의 취업노동 시간의 3가지 자원에 대한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 보살핌 시간이 여성 자녀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장노동 참여 여부가 부모 보살핌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있게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한편 몇몇 연구들에서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즉 부모세대에게서 자녀세대로 이전되는 측면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김미경, 주재선, 2003; 성지미, 차은영, 2001; Ingersoll-Dayton et al., 2001). 성지미와 차은영(2001)의 연구는 여성노인의 경우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 없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김미경과 주재선(2003)은 보살핌이 필요없는 노인과 동거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동거하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 혹은 건강한 노인과 동거가 가정생산에 기여하는 시간자원 이전의 형태로 나타나 기혼 여성의 시장노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Ingersoll-Dayton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에게서 받는 재정적 도움, 정서적 도움, 자녀보살핌, 가사일의 도움이 부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본인의 직업 노동을 덜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에게서 부모에게로 이전되는 시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전되는 부분을 부각시키거나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연구의 관점을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혼여성자녀의 노동공급과 노부모 보살핌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 모형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기혼여성이 노부모 보살핌 역할을 하면서 시장노동을 병행해야 할 경우 무엇보다 시간 갈등이나 시간 제약이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우선 시간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기혼여성자녀의 시장노동 참여에 노부모와의 시간자원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때 자녀에게서 노부모세대로의 시간 이전뿐 아니라 노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이전되는 시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가족관계 내에서의 메커니즘을 반영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기혼여성과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 이외의 변수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 기혼여성과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 이외에 기혼여성

의 시장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설명변수들을 연구대상자인 기혼여성과 관련된 변수, 노부모 관련 변수, 가족 관련 변수(시간요구변수와 재정변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사회 현상에 비추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과 관련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기혼여성과 관련된 변수 중 연령이나 교육수준은 개인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시장노동에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 연령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성지미, 차은영, 2001) 혹은 연간 수입노동시간(Johnson & Lo Sasso, 2000)과 역 U자의 관계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시장노동 참여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시간과는 관계 없거나(Wolf & Soldo, 1994) 혹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참여 시간이 높아지는 연구(Couch *et al.*, 1999)가 있어 대체로 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남성에게 비해 여성은 가족 상황 변화에 따라 취업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해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임금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시간이 보다 길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부모와의 시간 이전이 주요한 변수로 투입되었으므로 노부모와 관련된 변수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중 노부모의 건강과 노부모와의 동거 유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노부모를 보살피는 시간과 노부모에게서 도움 받는 시간은 부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자료에 부모의 건강상태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은 대용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상태와 매우 높게 관련되어 있다(Feinstein, 1993; Ettner, 1995). 노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안좋을 확률이 높아 보살핌 요구가 늘어날 것이다. 실증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살피는 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들이 많았다(Couch *et al.*, 1999; Pezzin & Shone, 1999). 또한 노인의 교육수준도 일반적으로 건강을 대신하는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으면 건강관리에 대한 능력이 높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을 보다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노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대신하는 대용변수로서 보살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 보다 건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Ettner, 1995). 소득은 그 자체로 노인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므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노부모와의 동거 유형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분되었는데 성지미와 차은영(2001)은 여성노인과의 동거 여부, 남성 노인과의 동거 여부와 기혼여성의 취업시간과의 관계

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노인과의 동거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부모가 결혼한 상태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살핌 시간이 줄어든다는 연구(Johnson & Lo Sasso, 2000)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아버지와만 동거, 어머니와만 동거, 양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한 부모와 동거하는 것 또는 동거하는 한 부모의 성별은 양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자녀에 대한 보살핌 요구나 자녀에게 이전되는 시간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련 변수는 시간요구 변수와 경제적 변수로 구분하였다. 시간요구 변수는 기혼 여성으로부터 시간을 요구하는 가족 상황에 관한 것으로 여성의 취업활동이나 취업시간과 갈등관계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의미하며 학령기 이전 자녀의 유무, 주택 면적, 남편의 성역할 분리 개념을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의 존재는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나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들이 있다(Wolf & Soldo, 1994; Couch, *et al.*, 1999).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집의 방의 갯수가 여성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데(허경옥, 1997; Gerner & Zick, 1983)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방의 갯수 대신 주택의 면적을 시간요구 변수에 포함시켜, 주택 면적이 넓으면 보다 많은 가사노동이 필요하므로 여성의 시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인에게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시간요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변수에는 남편의 월평균 소득, 현재 거주하는 집의 소유 여부, 현재 거주하는 집 이외에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켰다.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 시장노동 시간은 가계소득이나 자산과 관련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에는 가계소득과 자산을 직접 조사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변수들이 가계소득과 자산을 대신하는 변수들로 사용되었다.

2. 개념적 모델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개념적 모델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가계의 시간배분방식을 보여주는 기본적 가계생산모델에서 가계는 시장재, 가정재, 여가를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얻으며, 이러한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 하에서 시간을 시장노동, 가사노동, 여가에 배분한다고 가정한다(Bryant & Zick, 2006). 그런데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에게 동거하는 노부모 사이의 시간 이전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념을 포함시켜 기본 모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시간 이전은 이타주의론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이타주의론은 Becker(1991)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된 이론으로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이타적'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타인의 복지(well-being)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자신의 복지(well-being)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고선강,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타적 복지감은 특히 부모에게서 많이 일어나는데 부모는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자녀를 돕는 시간을 제공하며 이것이 자녀의 복지를 높이고 그 결과 부모의 복지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복지를 위하여 보살핌 시간을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부모의 복지가 높아지면 자녀의 복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시간은 여가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자녀의 효용을 낮추게 되지만 이타주의 측면에서는 효용을 높이는 특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간이 배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자녀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C), 여가(T), 노부모로부터 이전된 시간(T_i), 노부모의 복지 상태(W)를 통하여 효용(U)을 얻는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U = u(C, T_i, T_e, W; X) \quad (1)$$

여기에서 X는 기혼여성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설명 변수 벡터를 나타낸다.

노부모의 복지(W)는 노부모의 건강(H)과 기혼여성자녀에게서 이전된 노부모 보살핌 시간(T_e)의 함수로 가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 = w(H, T_e) \quad (2)$$

이러한 노부모의 복지 함수는 전체 함수를 생산해 내기 위해 자녀의 효용 함수 속에 다음과 같이 포함될 수 있다.

$$\text{Max } U(C, T_i, T_e, w(H, T_e); X) \quad (3)$$

이 때 자녀는 다음과 같은 예산제약과 시간제약 하에서 효용을 최대화하게 된다.

$$T + T_i = T_w + T_c + T_e \quad (4)$$

$$C = I + A \quad (5)$$

시간제약을 보여주는 식 (4)에서 T_w는 자녀의 시장노동 시간을 의미하며 예산제약을 나타내는 식 (5)에서 I는 본인의 임금소득, A는 비임금소득을 나타낸다.

결국 자녀의 총 가용시간은 노부모에게서 이전된 시간이 추가되어 T + T_i가 되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간을 시장노동, 노부모 보살핌, 여가에 배분하던 자녀는 노부모에게서 이전된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시간배분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노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의 시간 이전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여가시간을

적절하게 줄여 시장노동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식 (4)를 여가(T)에 관한 식으로 변형하여 (3)에 대입하고 시간 (식 (4))과 예산(식 (5))의 제약조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라그랑주 함수(lagrangian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L = U(C, (T + T_i - T_w - T_c), T_e, w(H, T_e); X) + \lambda_1(T - T_w - T_c - T_i + T_e) + \lambda_2(C - I - A) \quad (6)$$

위의 라그랑주(Lagrange) 함수로부터 일차균형조건(first order condition)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시간(T_w)에 대한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

$$T_w = (T_c, T_e, H, I, A; X) \quad (7)$$

III.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특히 기혼여성이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시간과 노부모가 기혼여성에게 제공하는 시간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노부모와 동거하는 취업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특히 취업기혼여성이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시간과 노부모가 취업기혼여성에게 제공하는 시간이 취업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와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이다. 통계청에서는 1999년에 처음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5년 주기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사용한 2004년 조사가 두 번째가 된다. 이 조사는 2004년 9월 2일 ~ 13일까지 12일 간 12,75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32,1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최종 응답자는 12,651가구 31,634명 이다.

질문지는 가구관련 설문지와 시간일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관련 설문은 가구관련 사항과 개인관련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시간일지는 미리 범주화된 생활행동에 10분 간격으로 기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여기에 한 응답자당 2일씩 자신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조사기간 12일 중 요일이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였다.

〈표 1〉 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종속변수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 시장노동 시간 ^a : 통계청(2005)에서는 생활시간조사에서 '수입노동시간 ^b '을 '유급 또는 무급의 생산적인 일'로 정의하고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구직활동 시간을 모두 포함함.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통계청의 정의를 따름. - 시장노동 참여 여부 ^c : 평일 시장노동 시간이 0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
독립변수		
〈시간자원 이전 변수〉		
기혼여성에게서 노부모에게로 이전된 시간		- 노부모 보살핌 - 노부모 보살핌 시간 ^a : 가족 보살피기의 하위 영역에 있는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시간을 의미함. 이 중 '부모 및 조부모의 질병 및 건강유지 증진 회복을 돕거나 신체적 수발 등을 돕는 행동'을 '간호'로, '보살피기에서 간호를 제외한 보살피거나 돕는 모든 행동'을 '일상생활 돌봄'으로 구분함 ^{d, e} .
노부모에게서 기혼여성에게로 이전된 시간 - 손자녀 보살핌 - 가사노동		- 손자녀 보살핌 시간 ^a :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의 입장에서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와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는 손자녀 보살피기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노부모의 손자녀 보살피기 시간으로 간주함. - 가사노동 시간 ^a : 동거하는 노부모가 수행한 가사노동 시간은 기혼여성의 가사노동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기혼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이라 판단하여 '자신의 가족이나 가구를 위한 가사노동이나 관리행동'으로 정의된 시간을 포함함. * 노부부가 함께 동거할 경우 노부부의 시간 합을 사용함.
〈시간자원 이전 이외의 변수〉		
기혼여성 (조사대상자) 관련	연령	- 만__세
	교육수준 ^c 직업종류 임금근로자 ^c 성역할태도 ^c	- ① 고등학교졸업 미만 (참고범주) ② 고등학교졸업-전문대학졸업 미만 ③ 전문대학졸업 이상 - ① 전문직·준전문직·사무직 ② 판매·서비스직 ③ 단순노무 등 기타 (참고범주) - 임금근로자이면 1, 아니면 0 -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 혹은 '찬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통적 성역할 분리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여 1, '반대하는 편이다' 혹은 '매우 반대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자유로운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0으로 구분함.
노부모관련	연령	- 부모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는 연령이 낮은 쪽을, 한 분만 생존하는 경우는 생존자의 연령을 사용함.
	교육수준 소득유무 ^c 동거유형 ^c	- 부모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은 쪽을, 한 분만 생존하는 경우는 생존자의 교육연수를 사용함. - 소득이 있으면 1, 아니면 0 - ① 아버지 홀로 동거 ② 어머니 홀로 동거 ③ 양부모 모두 동거 (참고범주)
가족관련	시간요구	- 미취학자녀가 존재하면 1, 아니면 0 - 기혼여성의 경우와 동일 - 평수
	재정	- 원 자료 수집시, 1-8단계까지는 50만원 단위로, 9단계 400-500만원 미만, 10단계 500만원 이상의 총 10단계로 구분 한 것을 1부터 8단계까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구분 범위가 다른 9-10 단계를 하나로 합하여 총 1-9 단계까지를 서열변수로 사용함. - 자가이면 1, 비자가이면 0 -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

^a: 모든 시간 양은 '평일 하루 평균 시간'이다.
^b: 통계청(2005) 행동분류 중 '2. 일'에 해당된다.
^c: 더미변수
^d: 통계청(2005) 행동분류 중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에 해당된다.
^e: 본 논문에서는 조부모와 사는 가구를 제외하였으므로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는 '부모 보살피기'라고 할 수 있다.
^f: 통계청(2005) 행동분류 중 '5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와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에 해당된다.
^g: 통계청(2005) 행동분류 중 '4. 가정관리'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2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이며 이 중 기혼여성이 분석 대상이다. 여기에서 기혼여성이란 며느리와 기혼 딸을 모두 포함한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선택한 이유는 기혼여성이 취업노동 참여를 결정하거나 취업노동에 시간을 배분할 때 남편의 존재와 동거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함께 자녀의 나이 22세는 일반적으로 대학교 4학년의 나이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 때까지는 부모의 자녀보살핌 역할이 크므로 2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그 시간배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제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기혼여성이 노부모를 보살피는 시간과 노부모가 기혼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을 주요 설명 변수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집단 중 기혼여성의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를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자료의 시간영역 구분이 '노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로 되어 있어 '노부모 보살핌 시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본 논문의 의도에 좀더 근접한 표본을 구성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결과 총 242가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한편 242가구에 속한 기혼여성은 전술하였듯이 2일 (평일과 평일, 평일과 토요일, 평일과 일요일, 토요일과 일요일) 간 시간일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응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한꺼번에 분석한다면 요일 변수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가려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노동활동을 하는 평일에 응답한 경우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2일 중 하루만 평일에 응답한 경우는 그 응답이 선택되었고, 2일 모두 평일에 응답한 경우는 첫 날 응답한 것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하루도 평일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총 242명의 기혼 여성과 그와 함께 거주하는 남편과 노부모의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앞에서 구성한 개념적 모델인 식 (7)에 근거하여 노부모와 기혼여성 사이의 시간 이전 행동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노동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노동에 참여한 경우 시장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아직은 시장노동 참여가 가족 상황등에 따른 선택사항의 경향이 있어 시장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혼여성이 상당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 (7)을 변형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r (T_w > 0) = g(T_c, T_i, H, I, A, X_1, e_1) \quad (8)$$

$$(T_w | T_w > 0) = h(T_c, T_i, H, I, A, X_1, X_2, e_2) \quad (9)$$

여기에서 시장노동 참여 결정에 관한 식 (8)은 Probit 분석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시장노동에 진입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시장노동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식 (9)의 경우 전체 기혼 여성 집단에서 시장노동 시간이 0 이상인 사람만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표본선택편의 (sample selection bias)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장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변수들로부터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편의를 교정하기 위하여 Heckman의 2 단계 표본 선택 모델(2-step sample selection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Green, 1993; Maddala, 1983).

여성의 시장노동 시간 처럼 종속변수에 0이 많은 경우 전형적인 Tobit 모델의 자료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Tobit 모델에서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며 관찰된 0 값은 censoring의 결과이다. 이것은 시장노동 시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시장노동 시간에서 0 값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White-Means & Rubin, 2004). 또한 Duan, Manning, Morris & Newhouse(1983)에 의해 개발된 Two-part 모델은 (8)과 (9)로 표현된 방정식과 매우 비슷하여 이러한 식이 구성되는 경우 Two-part 모델도 많이 이용되는데 이 모델에서는 두 오차항(e_1 과 e_2)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모델에서 시장노동 참여 결정과 시장노동에 사용한 시간 모두를 설명하는 공동 생략 변수(common omitted variable)가 있을 경우 두 오차항은 서로 상관되어 있을 것이므로(Maddala, 1985, Kenkel, 1990에서 재인용) Two-part 모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Heckman의 2단계 모델을 추정하기 위한 첫 단계는 식 (8)과 동일하며 여기에서 표본선택편의를 교정하는 inverse Mills ratio(Heckman's λ)를 도출한다(Heckman, 1976).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장노동에 진입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OLS(Ordinary Least Square) 방법을 통한 회귀분석을 하는데 이 때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한 inverse Mills ratio를 추가하게 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기혼여성 본인의 소득은 시장노동 시간과의 정적 상관관계가 너무 크고, 남편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이 기혼여성의 소득에도 중복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변수에서 제거하였다. 따라서 식 (9)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T_w | T_w > 0) = h(T_c, T_i, H, A, X_1, X_2, \lambda, e_3) \quad (9')$$

따라서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식 (8)는 기혼여성의 노부모 보살핌 시간(T_c), 노부모의 자녀 보살핌시간(T_i ; 손자녀 보살핌 시간, 가사노동시간), 노부모의 건강관련 변수

(H; 연령, 교육수준, 소득 유무), 가계 자산(A; 남편소득,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 여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주택 소유 여부), 기타 변수 벡터(X_i ; 본인 관련 변수 중 교육수준, 성역할태도, 가족 관련 변수 중 남편의 성역할태도, 미취학자녀 유무, 주택면적 등을 포함하는 시간요구 변수)의 함수이며 시장노동 시간 식 (9')은 여기에 기혼여성의 직업관련 변수 (X_2 ; 기혼여성의 직업종류와 임금근로자 여부)와 식 (8)에서 도출된 λ 가 추가되는 함수가 된다.

3) 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은 기혼 딸이나 며느리를 모두 포함하며, 따라서 '노부모'에는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모두 포함된다. 그 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방법은 <표 1>과 같다.

3.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본 논문에서 기혼여성의 수입노동참가율은 71.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48.7%(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인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김미경과 주재선(2003)이 여성개발원의 2001년도 '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과 동거하는 여성은 비 동거 여성에 비해 높은 경제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15세~44세 기혼 여성 중 노인과 동거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3%,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42.4%로 그 차이가 컸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노인 동거 여성은 비동거 여성에 비해 출산, 육아, 보육으로 인한 시장 퇴출이 적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시장노동 참가율이 전체 기혼여성과 차이가 큰 것도 이러한 표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과 노부모와의 이전 시간

시장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평일 하루 평균 시장노동 시간은 6시간 21분 이었으며 노부모 보살핌 역할을 수행하는 자녀의 시장노동 시간은 4시간 16분으로 그렇지 않은 자녀(6시간 28분)에 비해 평일 평균 2시간 14분 시장노동을 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에 따른 노부모 보살핌 시간은 <표 3>의 위쪽에 나타나 있다. 노부모 보살핌 역할을 수

행하는 기혼여성은 전체 242명 중 20명으로 8.3%에 불과하여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시장노동 참여 여부별로 비교해 보면, 시장노동에 참여하면서 노부모 보살핌 역할을 수행하는 자녀는 전체 173명 중 9명으로 5.2%, 시장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노부모 보살핌 역할을 수행하는 자녀는 69명 중 11명인 15.9%로,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부모 보살핌 역할을 수행하는 비율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부모 보살핌 시간의 전체 평균은 3분으로 매우 적었는데 이는 그 행위자가 전체의 8.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부모 보살핌 역할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의 보살핌 시간은 평균 39분이었으며 시장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17분, 시장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57분으로 시장노동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보살핌 시간이 그렇지 않은 자녀의 1/3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표준편차를 살펴 보면 시장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이 17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1시간 24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노동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노부모 보살핌 시간 변화 폭이 훨씬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혼여성이 시장노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부모 보살핌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가 낮고 수행한다고 해도 그 시간을 할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부모 보살핌 시간을 간호와 일상생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관한 것 보다는 간호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노동 참여 여부별 시간 차이가 컸다. 이는 시간 요구가 큰 간호가 필요한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부모가 기혼여성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표 3>의 아래쪽에 나타나 있다. 우선 손자녀 보살핌 시간과 가사노동 시간 비교해 보면, 전체 242가구 중 손자녀를 보살피는 노부모는 19.0%, 가사노동을 하는 노부모는 84.3%로 가사노동으로 자녀를 돕는 비율이 높았다. 노부모에게 손자녀 보살핌은 주로 어린 손자녀가 있을 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할 때, 손자녀 보살핌 비율이 낮은 것은 본 연구대상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8.7%에 불과한 것과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부모의 손자녀 보살핌 참여율은 아버지(7.4%)에 비해 어머니(20.0%)의 수행 비율이 높았다. 그렇지만 그 시간양에 있어서는 아버지(42분)와 어머니(51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가사노동의 경우 아버지의 절반 정도(47.1%)와 대부분의 어머니들(89.5%)이 가사노동을 하여 기혼여성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시간양에 있어서 기혼여성이 시장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행 시간 차이가 1시간 미만이었지만 기혼여성이 시장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 (%)		
			전체 n=242	시장노동참여 n=173(71.5%)	시장노동비참여 n=69(28.5%)
기혼여성 (조사대상자) 관련	연령	평균(만_세) ^a	41.4(4.9)	41.3(4.7)	41.8(5.3)
		30대	94(38.8)	69(39.9)	25(36.2)
		40대	135(55.8)	98(56.7)	37(53.6)
		50대	13(5.4)	6(3.5)	7(10.1)
	교육수준	평균 연수 ^a	11.5(2.8)	11.4(3.0)	11.7(2.3)
		고등학교졸업 미만	68(28.1)	53(30.6)	15(21.7)
		고등학교졸업 이상	130(53.7)	88(50.9)	42(60.9)
전문대학졸업 이상		44(18.2)	32(18.5)	12(17.4)	
소득(만원)	평균 ^a	1.5(1.8)	2.0(1.9)		
	0	113(46.7)	56(32.7)		
	100 미만	71(29.3)	61(35.3)	NA ^b	
	100 이상 ~ 200 미만	39(16.1)	38(22.0)		
	200 이상 ~ 300 미만	12(5.0)	11(6.4)		
직업	300 이상	7(2.9)	7(4.1)		
	무직 혹은 missing 전문직·준전문직·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타	71(29.3) 48(19.8) 62(25.6) 61(25.2)	16(9.3) 45(26.1) 56(32.4) 56(32.4)	NA ^b	
성역할고정관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03(42.6) 139(57.4)	92(53.2) 81(46.8)	NA ^b	
	고정관념적 비고정관념적	69(28.5) 173(71.5)	46(26.6) 127(73.4)	23(33.3) 46(66.7)	
	노부모동거유형	아버지만 어머니만 부모모두	32(13.2) 174(71.9) 36(14.9)	21(12.1) 129(74.6) 23(13.3)	11(15.9) 45(65.2) 13(18.8)
노부모관련	연령 ^a (만_세)	부 모	74.4(6.0) 72.2(6.6)	74.2(6.2) 72.4(6.5)	74.8(5.8) 71.8(6.7)
	교육수준 ^a (연수)	부 모	5.9(4.7) 2.8(3.5)	5.8(4.9) 2.6(3.4)	6.1(4.4) 3.3(3.7)
	시간요구	성역할 고정관념	고정관념적 비고정관념적	130(53.7) 112(46.3)	87(50.3) 86(49.7)
미취학자녀		유 무	21(8.7) 221(91.3)	13(7.5) 160(92.5)	8(11.6) 61(88.4)
주택면적(평) ^a			26.6	26.5(12.2)	26.7(6.3)
가족관련	남편소득 (만원)	평균 ^a	4.7(2.2)	4.5(2.2)	5.1(2.1)
		0	13(5.4)	11(6.4)	2(2.9)
		100 미만	17(7.0)	13(7.5)	4(5.8)
		100 ~ 200	82(33.9)	59(34.1)	23(33.3)
		200 ~ 300	84(34.7)	62(35.8)	22(31.9)
	300 이상	46(19.0)	28(16.2)	18(26.1)	
	재정상태	부모소득	있음 없음	34(14.1) 208(86.0)	26(15.0) 147(85.0)
거주주택소유		소유 비소유	215(88.8) 27(11.2)	154(89.0) 19(11.0)	61(88.4) 8(11.6)
다른 주택 소유		소유 비소유	38(15.7) 204(84.3)	29(16.8) 144(83.2)	9(13.0) 60(87.0)

^a: 평균(표준편차)

^b: 주중에는 시장노동을 하지 않았거나 응답하지 않았으나 주말에는 시장노동을 한 경우가 13명이 되어 약간의 소득과 직업분포가 나타났지만 필요없는 정보라 판단되어 그 결과는 생략하였다.

〈표 3〉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과 노부모와의 이전 시간

(시간:분)

	전체시장				노동 참여시장				노동 비참여			
	n	M(SD)	n (%)	M(SD)	n	M(SD)	n (%)	M(SD)	n	M(SD)	n (%)	M(SD)
〈기혼여성의 노부모 보살핌〉												
			행위자				행위자				행위자	
전체		0:03(0:21)		0:39(1:05)		0:01(0:05)		0:17(0:17)		0:09(0:38)		0:57(1:24)
간호	242	0:02(0:18)	20(8.3)	0:19(1:03)	173	0:00(0:03)	9(4.8)	0:04(0:13)	69	0:05(0:34)	11(15.9)	0:31(1:23)
일상생활		0:02(0:11)		0:20(0:33)		0:01(0:04)		0:12(0:15)		0:04(0:19)		0:26(0:43)
〈노부모가 기혼여성에게 도움 제공〉												
			행위자				행위자				행위자	
손자녀												
보살핌												
부	68	0:03(0:17)	5(7.4)	0:42(0:52)	44	0:03(0:20)	3(6.8)	0:50(1:09)	24	0:03(0:10)	2(8.3)	0:30(0:28)
모	210	0:10(0:28)	42(20.0)	0:51(0:43)	152	0:10(0:27)	34(22.4)	0:47(0:41)	58	0:09(0:30)	8(1.4)	1:09(0:50)
부모 ^a	242	0:10(0:28)	46(19.0)	0:51(0:43)	173	0:10(0:27)	37(15.3)	0:47(0:42)	69	0:09(0:28)	9(13.0)	1:08(0:46)
가사노동												
부	68	0:26(0:43)	32(47.1)	0:56(0:48)	44	0:26(0:46)	19(43.2)	1:01(0:53)	24	0:26(0:38)	13(54.2)	0:48(0:40)
모	210	2:24(2:02)	188(89.5)	2:41(1:58)	152	2:49(2:04)	143(94.1)	3:00(1:20)	58	1:19(1:30)	45(77.6)	1:42(1:30)
부모 ^a	242	2:13(2:08)	204(84.3)	2:37(2:05)	173	2:35(2:14)	151(87.3)	2:58(1:29)	69	1:16(1:30)	53(76.8)	1:39(1:31)

^a: 아버지와만 동거하는 경우 아버지의 시간, 어머니와만 동거하는 경우 어머니의 시간, 노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 노부모 시간의 합.

노동을 하는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2시간 정도 많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이 시장노동을 할 경우 어머니의 가사노동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기혼여성 and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과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1) 기혼여성 and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과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는 〈표 4〉의 1단계 Probit 부분에 나타나 있다.

우선 기혼여성 and 노부모 사이의 시간자원 이전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의 노부모 보살핌 시간은 본인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에 부적 영향을 미쳐 기혼여성이 노부모 보살핌 시간이 많을수록 시장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부모가 기혼여성에게 제공하는 시간 중 손자녀 보살핌 시간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사노동 시간은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쳐 노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보살핌에 대한 본 결과와 기술통계 결과(〈표 3〉)를 관련시켜 볼 때, 손자녀 돌보기는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에 상관 없이 그 역할이 요구되는 가계 상황일 경우 노부모가 비교적 일정하게 담당하는 역할이지만 가사노동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참여 여부에 따라

그 시간을 조정하는 노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노부모와의 시간 이전 변수 이외에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본인과 관련된 변수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노부모관련 변수 중 노부모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확률이 높았다. 소득이 있는 노부모는 자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노부모보다 본인의 건강을 돌보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자녀의 보살핌을 덜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은 노부모를 보살피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므로 시장노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가족관련 변수 중에서는 남편의 소득과 부적 관계가 나타나 남편의 소득이 많을수록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확률이 적었다.

(2) 기혼여성 and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과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시간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시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관하여는 〈표 4〉의 2단계 Regression 부분에 나타나 있다.

우선 기혼여성 and 노부모 사이의 시간이전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이 노부모를 보살피는 시간과 노부모가 기혼여성을 돕는 시간 모두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시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 보살피는 시간과 시장노동 시간과의 상관관계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은 Couch et al.(1999)의 연구 결과와는 비슷하며 한편 부모 보살피는 시간이 시장노동 시간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표 4〉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참여에 대한 Heckman의 2단계 모델

		1단계 Probit		2단계 Regression		
		추정계수	p 값	추정계수	p 값	
〈시간자원 이전 변수〉						
기혼여성의 노부모 보살핌		-0.0239	0.0449	5.8861	0.0600	
노부모가 기혼여성에게 도움 제공 손자녀 보살핌		0.00027	0.9534	-0.5903	0.2972	
가사노동		0.00484	<.0001	-0.5133	0.1041	
〈시간자원 이전 이외의 변수〉						
기혼여성 관련	연령	0.4697	0.1115	-96.727	0.0640	
	(연령) ²	-0.0058	0.0947	1.1877	0.0611	
	교육수준 (참고범주: 고졸 미만)					
	고졸 이상	-0.3642	0.1285	33.1216	0.4345	
	초대졸이상	-0.1131	0.7492	-22.1032	0.6739	
	직업종류 (참고범주: 단순노무직 등 기타)					
	전문직·준전문직·사무직	-	-	12.0859	0.7722	
	판매·서비스직	-	-	61.1541	0.0467	
	임금근로자	-	-	91.5069	0.0012	
	성역할태도	-0.1222	0.5790	36.1440	0.2132	
노부모 관련	동거유형 (참고범주: 노부모 모두 동거)					
	아버지와 동거	0.5456	0.4055	0.1480	0.1802	
	어머니와 동거	0.0983	-69.819	0.9988	0.1721	
	연령	0.0154	0.4438	-5.4389	0.0441	
	교육수준	-0.0342	0.2530	0.5729	0.8928	
	소득유무	0.6759	0.0383	-92.009	0.1443	
가족 관련	시간 요구	남편성역할태도	-0.3594	0.0781	8.6466	0.8083
		미취학자녀유무	-0.5338	0.2047	62.6028	0.3421
		주택평수	0.00209	0.8136	0.1711	0.8682
	재정	남편소득	-0.1020	0.0403	24.3718	0.0112
		주택소유여부	0.3251	0.3296	-80.019	0.0993
		다른주택소유여부	0.3129	0.2855	-82.2039	0.0430
inverse Mills ratio				-426.2110	0.0085	
상수항		-10.121	0.1082	2890.561	0.0158	
Chi sq / F		59.3382	<.0001	1.86	0.0149	
R ² (Adj R ²)		-		0.2228(0.1029)		
-2 Log Likelihood		229.962		-		

Johnson과 Lo Sasso(2000)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1단계의 Probit 분석과 함께 살펴보면, 기혼여성과 노부모 사이의 시간 이전 변수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시장노동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기혼여성이 시장노동 참여를 결정할 때 노부모를 보살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우선 자신이 시장노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판단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부모로부터의 도움이 있다면 이것도 결정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그 결과 시장노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것은 노부모 보살피는 책임과 시장노동을 병행할 수 있다고 혹은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시간이전 변수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시간을 좌우할 만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게 된다. 이는 노부모 보살핌 책임이 큰 경우 노부모로부터의 도움이 여성의 시장노동 진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시장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는 Ettner(1995)의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장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시간자원 보다는 금

전자원으로 노부모를 부양할 가능성도 고려된다. 본 연구 결과 비록 약한 관련성이긴 하지만($p=0.06$) 노부모 보살핌 시간이 길수록 오히려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기혼여성이 이미 시장노동 참여를 결정한 상태에서도 노부모를 보살피는 시간이 길 때는 노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때 시간적 기여뿐 아니라 금전적 기여도 중요하므로 자녀의 시장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장애가 있는 노부모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자녀는 시장노동에서 일할 확률이 높은 결과가 나타난 White-Means와 Hong(2001)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시간이전 변수 이외의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본인 관련된 변수 중 직업 종류와 임금근로자 여부가 시장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단순노무직 등 기타 직업보다 시장노동 시간이 길었다. 또한 예상한대로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보다 시장노동 시간이 길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 시간 선택의 폭이 좁고 융통성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부모관련 변수 중 노부모의 연령이 적을수록 시장노동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노부모의 연령을 건강상태를 대신하는 변수로 판단하고 연령이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 확률이 높아 기혼여성의 보살핌을 덜 필요로 하며 또한 기혼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할 여지가 크므로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시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한 가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노부모의 연령과 건강, 기혼여성과의 시간 이전,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시간과의 관계를 설정 하였을 때 실질적인 시간 이전 변수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시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는 다소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세대간 이전되는 시간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노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여성이 시장노동에 좀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노부모의 연령이 낮은 즉 건강상태가 좋은 것이 단지 시간면에서만 자녀의 시장노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혼여성의 부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하는 등의 다른 측면으로도 영향을 미쳐 자녀의 시장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재정관련 변수 중 남편의 소득은 시장노동 시간에 정적 영향을 미쳐 남편의 소득이 많을수록 시장노동을 하고 있는 아내의 시장노동 시간이 길었다.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참여 여부와 연관하여 살펴볼 때,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시장노동 진입 확률은 낮았지만, 일단 진입하고나면 남편의 소득이

많을수록 여성의 노동시간이 더 긴 상반된 결과이다. 남편의 소득 범주에는 재산소득도 있지만, 유동 자원 성격이 강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남편의 유동자원이 많다는 것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부분을 사회화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노동에 참여한 여성은 본인이 담당해야 하는 가정 관련 일들을 보다 쉽게 사회화 시킬 수 있으며 그 부분에서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하여 본인의 시장노동시간에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기혼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시장노동 시간이 적었는데 이는 자산에 대한 안정성이 아내가 시장노동을 덜 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시간에 유동자원과 부동산 자산이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inverse Mills ratio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노동에 참여한 여성만을 선택할 경우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inverse Mills ratio를 통하여 이러한 편익이 교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부모에게로 이전되는 시간과 노부모에게서 도움받는 시간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활동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5년 마다 수행하는 '생활시간조사' 2004년도 원자료를 사용하여,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의 노부모 보살피는 시간과 노부모가 기혼여성에게 도움 주는 시간-손자녀보살핌과 가사노동-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Heckman의 2단계 모델을 구성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기혼여성과 노부모 사이의 시간 이전과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결정에는 시간 이전 변수들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즉 기혼여성에게서 노부모에게로 이전되는 노부모 보살피는 시간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노부모에게서 기혼여성에게로 이전되는 노부모의 가사노동 시간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결정과는 달리 이러한 결정 후 이루어지는 시장노동 참여 시간에는 노부모와 기혼여성 사이의 이전 시간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대간 시간 이전은 시간 갈등적 성격이 강한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에 있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강한 영향 요인이 되지만,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이전되는 시간 보다는 시장노동 자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부모의 손자녀 보살핌 시간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결정이나 시장노동 시간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손자녀 보살핌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나 정도에 상관 없이 그것이 필요한 가계 상황일 때 노부모가 일정하게 기여하는 부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 자녀의 존재'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에 미치는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취학 자녀의 존재'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변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나 시간 모든 측면에서 아무런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미취학 자녀의 존재가 기혼여성 입장에서는 시간제약 요소이지만 동시에 노부모로부터 시간자원을 이전 받는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노부모의 손자녀 보살핌 시간이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기혼여성에게 미치는 시간갈등적 요인을 상쇄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노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 가계 구조 내에서 세대간 시간자원 이전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나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다. 노부모를 보살피는 시간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여부에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노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은 직접적인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노부모의 손자녀 보살핌 시간은 미취학자녀의 존재라는 제약 상황을 약화시킴으로써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와 참여 시간에 자원으로 기능하면서 시간갈등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미취학 자녀의 존재와 노부모의 손자녀 보살핌과의 관계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모델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혼여성의 효용 차원에서 볼 때 노부모에게서 이전되는 시간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에 긍정적 작용을 함으로써 기혼 여성의 효용을 증가시킨다고 하겠다. 또한 동거하는 노부모가 가계 내에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노부모의 복지감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노부모의 도움 제공이 결국 기혼여성의 효용을 증가시키므로 이타주의적 측면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시장노동에 참여한 기혼여성은 본인에게 부족한 시

간보다는 금전적인 측면으로 동거하는 노부모를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전 자원에 대해 시간자원과 금전자원을 모두 고려하면서 그 이전 경로와 결과를 파악해봄으로써 세대간 자원이전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혼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거하는 노부모의 자녀세대에 대한 기여는 그동안 핵가족을 이상적으로 추구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3세대 확대 가족을 하나의 대안으로 삼으려는 시도들과도 관련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도움받을 수 있는 노부모의 동거만을 선호한다고 했을 때 이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동거함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를 보살피는 경우가 10%도 안되는 것을 보면 이미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따라서 3세대 확대 가족을 기혼여성 취업과 노인 보살핌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삼을 때 특히 건강이 나쁜 노인과의 동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시간양에 관한 기술적 분석 결과 기혼여성이 시장노동에 참여한 경우 노부모 보살핌 시간 중 특히 간호하는 시간이 적은 것을 볼 때 시간요구가 큰 간호가 필요한 노부모와의 동거는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에 부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경우 현재 기혼여성이 비취업 상태라도 그들의 취업욕구를 파악하여 취업을 원할 경우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간호가 필요한 노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 필요 등으로 기혼여성이 현재 취업하고 있다면 노인과 기혼여성의 삶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원과 대책은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노인과 기혼여성의 취업 양방향으로의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간관련 변수 이외에 노부모관련 변수와 재정관련 변수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결정이나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부모관련 변수는 자원이 있거나 연령이 낮을 경우 자녀의 시장노동 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러한 변수들을 건강관련 변수의 대체 변수로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정당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정관련 변수는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결정과 시장노동 참여 시간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적용한 Heckman의 2단계 모델은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시간에 대해 분석 할 때 취업한 여성만을 선택 할 경우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편의를 교정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제한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도 병행하고자 한다. 우선 자료 자체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본 자료는 동거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므로 세대간 동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파악할 수 없다. 또한 동거하는 기혼여성이 딸인지 며느리인지, 동거하는 부모가 시부모인지 친정부모인지에 관한 정보가 없어 이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다소 제한된 의미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더불어 노부모 보살피는 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투입된 만큼 부모의 건강상태에 대한 변수를 직접 포함시킨다면 보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자료의 한계때문에 그 대용변수만을 사용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하겠다.

본 자료는 모든 행동에 대한 시간량이 측정되어 있어서 노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 노부모 보살핌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 판단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그 시간이 굉장히 적었고 나아가 10분도 할애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노부모 보살핌 시간을 내생적 변수로 다루는 모델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한편으로 동거하는 경우 기혼여성 입장에서 순수하게 부모 보살피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가사노동 시간으로 편입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동거하는 경우 노부모 보살피는 시간에 관한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3세대 동거가 주로 건강한 노부모와의 동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때 건강하지 않아서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은 시설에 거주하거나 홀로 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동거 정도나 혹은 노부모 보살핌 시간이 있는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그 행동을 파악해 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8-195.
 김미경, 주재선(2003). 고령화시대 노인부양부담과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연구, 65, 181-210.
 성지미, 차은영(2001).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노동경제논집, 24(1), 97-124.

통계청(2005). 2004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대전: 통계청.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7.
 Boaz, R. F., Hu, J., & Ye, Y. (1999). The transfer of resources from middle-aged children to functionally limited elderly parents: Providing time, giving money, sharing space. *The Gerontologist*, 39(6), 648-657.
 Bryant, & Zick(2006).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uch, K., Daly, M. C., & Wolf, D.(1999). Time? Money? Both?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o older parents. *Demography*, 36(2), 219-232.
 Duan, N., Manning, W. G. Jr., Morris, C. N., & Newhouse, J. P.(1983), A comparison of alternative models for the demand for medical care.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s Statistics*, 1(2), 115-126.
 Ettenr, S. L.(1995). The impact of "parent care" on female labor supply decisions. *Demography*, 32(1), 63-80.
 Ettenr, S. L. (1996). The opportunity costs of elder care.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1(1), 189-205.
 Feinstein, J. S.(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Milbank Quarterly*, 71(2), 279-322.
 Gerner, J. L., & Zick, C. D.(1983). Time allocation decisions in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rch Journal*, 12(2), 145-158.
 Green, W.(1993). *Econometric Analysis*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ilshing
 Grossman, M.(1976). "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and schooling." 147-211 in *Household production and Consumption*, edited by Terleckyj, N.E.. New York: Columbia Univesity Press.
 Heckman, J. J. (1976). The common structure of statistical models of truncation, sample selection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nd simple estimator for such models. *Annals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5(4), 475-492.
 Ingersoll-Dayton, Neal, & Hammer(2001). Aging parents helping adult children: The experience of the sandwich generation. *Family Relations*, 50, 262-271.

- Johnson, & Lo Sasso(2000). *The trade-off between hours of paid employment and time assistance to elderly parents at midlife*. The Urban Institute, Washington DC.
- Kenkel, D.(1990). Consumer health information and the demand for medical car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2(4), 587-599.
- Lee, L. F.(1982). "Simultaneous equations models with discrete and censored dependent variables." Pp. 346-364 in *Structural analysis of discrete data with econometric applications*, edited by C.F. Manski & D. McFadden. Cambridge, MA: MIT Press.
- Loomis, L. S., & Booth, A.(1995). Multigenerational Caregiving and Well-Being: The Myth of the Beleaguered Sandwich Gener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6(2), 131-148.
- Maddala, G. S.(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valko, E. K., & Artis, J. E.(1997). Women's caregiving and paid work: Causal relationships in late midlife. *The Journal of Gerontology*, 52B(Jul.), S170-S179.
- Pezzin, L. E., & Schone, B. S.(1999). Intergenerational household formation, female labor supply and informal caregiving: A bargaining approach. *Journal of Human Resources*, 34(3), 475-503.
- Stern, S.(1995). Estimating family long-term care decisions in the presence of endogenous child characteristic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2), 551-580.
- White-Means, S. I., & Hong, G-S.(2001). Giving Incentives of Adult Children Who Care for Disabled Par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2), 364-389.
- White-Means, S. I., & Rubin, R. M.(2004). Trade-offs between formal home health care and informal family caregiving.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3), 335-358.
- Wolf, D. A., & Soldo, B. J.(1994). Married women's allocation of time to employment and care of elderly paren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3), 1259-1276.
- www.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2007년 2월 7일 접수, 2007년 5월 28일 채택)